

skyLife + 이동수 · SkyLife 방송운용팀

스위스 Lysis사 출장기

이번 출장은 당사 시스템 운용 교육 및 최근 이루어진 시스템 변경의 보완점에 대한 협의가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 Lysis가 추진 중인 차세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과 Nagravision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다.



[스위스 산악 열차]



기차의 나라 스위스

Lysis사(스위스 Cheseaux)의 출장(2008년 11월 1~8일)은 당시(SkyLife) TCS(Traffic Control System)의 버전 업 작업이 완료되며, 몇 가지 이슈사항 보완과 시스템의 운용 교육차 이뤄졌다. 당사 TCS는 자동송출 시스템 및 CAS 등과 연계하여 자체 운용채널의 스케줄 및 EPG 등을 운용하는 주요한 시스템 중 하나이다.

이른 아침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저녁 무렵에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보다 다소 추운 날씨에 약간 당황스러웠다. 예상은 하고 두터운 옷들을 챙겨 왔지만 갑자기 기후가 바뀌어서 몸의 움직임이 아직 적응을 못한 듯 했다.

일행은 기차를 이용해 숙소인 루체른(Luzern) 시로 이동하기로 했다. 공항과 기차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무척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나중에도 느꼈지만 스위스의 철도는 마치 서울의 지하철처럼 어느 곳이든 연결되어 있어 여행자들에게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었다. 심지어 해발 3,000m가 넘는 산까지 기차가 다니고 있으니 가히 기차의 나라라고 할만하다. 처음 탄 기차는 2층짜리로 신기한 생각에 2층 좌석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무거운 짐 때문에 2층에 올라온 순간 후회가 됐다. 다음부터는 그냥 1층 좌석에 앉아야겠다.

기차로 이동을 하면서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표 검사를 승차 후에 한다는 것이다. 비단 기차뿐만 아니라 버스까지도 그런 점이 약간 생소했다. 과거 우리나라도 차장이 객실 안을 다니며 검표를 하던 생각이 아련히 났다. 이러한 시스템이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여전히 있다니 놀라웠다. 유럽 전체가 철길로 연결되어 있어 다른 유럽 국가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 되고 있는지 궁금했다.(일정상 다른 국가는 가보지 못했다)

산과 호수의 나라

토요일 저녁에 도착한 관계로 일요일 하루의 여유 시간에 루체른 시내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산과 호수의 나라라는 닥네임답게 루체른시의 중앙에 위치한 루체른 호수와 주변의 산세는 많은 관광객을 끌만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곳에는 비교적 유명한 '빈사의 사자상'과 '카펠교'라는 다리가 있었다. 기왕 온 김에 이 두 가지는 꼭 보고가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시내를 헤맸다.

루체른 호수에는 우리나라에선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커다란 백조들이 유유히 헤엄치며 시민들이 던져주는 빵조각을 먹고 있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평화롭게 호수 주변에서 백조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무척 여유로워 보였다. 집 근처에 이런 휴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호수 주변을 걷다보니 다리 전체를 꽃으로 장식한 카펠교가 눈에 띄었다. 이곳 루체른의 명물인 카펠교는 유럽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나무다리라고 한다. 아름다운 다리 모습에 감탄하며 다리를 건너다 보니 중간 중간 오래된 판화 그림들과 함께 한국인의 발자취(한글로 적혀 있는 '누구누구 다녀감' 등의 낙서)를 느낄 수 있어서 약간은 씁쓸했다.

[루체른 호수]





[빈사의 사자상]



[카펠교의 꽃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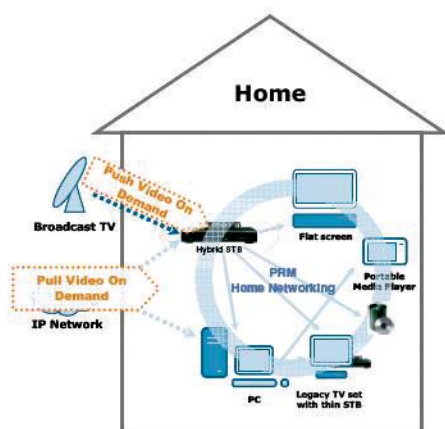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카펠교와 달리 빈사의 사자상은 한참 헤맨 후 찾을 수 있었다. 지도를 약간 잘못 본 실수로 방향을 못 잡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사자상의 모습은 안보고 그냥 갔으면 후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관이었다. 사자상은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위해 죽은 약 800명의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 이 사자상은 사자의 갈기까지 세밀하게 조각된 것도 훌륭하지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자의 슬픈 눈이 더욱 애처롭게 표현되어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럽의 디지털 방송 추세

Lysis Multiple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본격적인 업무를 위해 월요일 Lysis사를 방문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답지 않게 한적한 시골 마을에 창고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어 이채로웠다. 당사와 관련한 현안 등을 논의한 후 Lysis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었다.

PC, 핸드폰, PDA, STB(위성 & IP Network 연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영화, 게임, 노래 1곡, 사진 화보, PC Wallpaper, 핸드폰 연결음, 핸드폰 배경화면 등을 개별 혹은 주제 단위의 패키지 판매를 가능케 하는 콘텐츠 관리 솔루션으로 현재 Beta version 완료(PC, Mobile, 위성, IPTV Platform) 후, 2009년 상용버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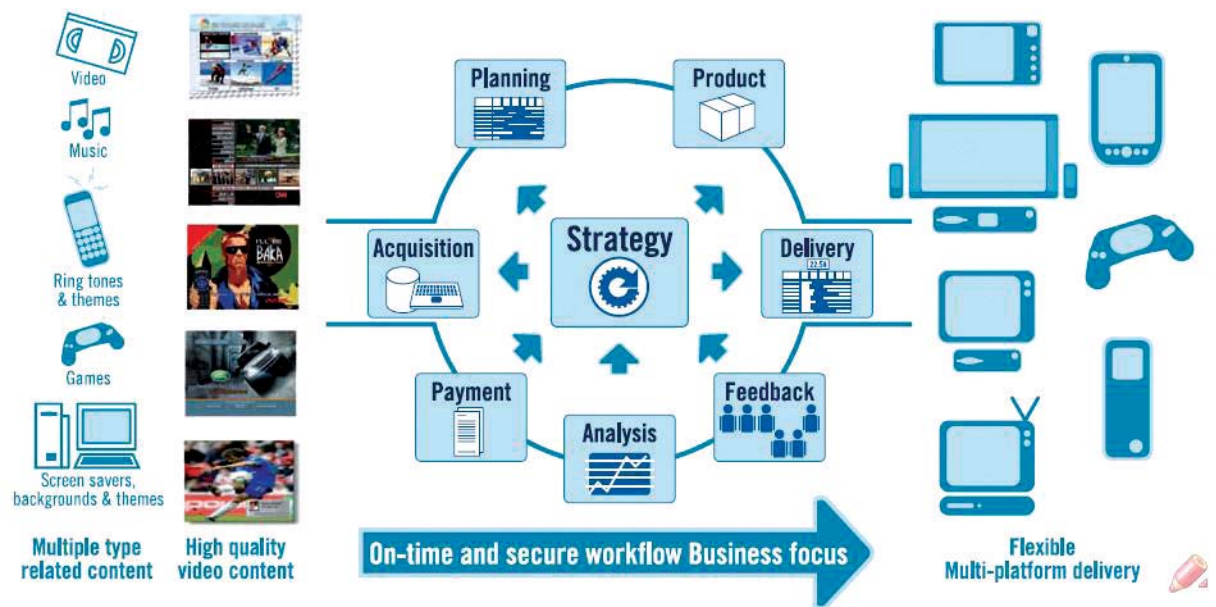
[콘텐츠별 최적 플랫폼]

Lysis사가 보는 각 콘텐츠별 최적 플랫폼

- New Premium Contents => (Push)VOD : 위성
- Old Premium Contents => (Pull)VOD : IP Network
- UCC Contents => Internet(PC)/VOD : IP Network, PC Portal

Lysis사가 보는 각 수신 단말 별 장점

- PC : 다양한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검색하여 확인/구매
- 핸드폰 : 항상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
- IRD : 거실에서 가장 편안히 접근 가능한 매체



[Lysis CMS 비즈니스 흐름도]

현재 영국의 BskyB에서 Anytime on TV(Push VOD), Anytime on PC(PC-VOD), Anytime on Mobile(VOD)이라는 브랜드로 유사 Multiplatform을 서비스 중에 있다고 한다.

기술적으로 통합 콘텐츠 관리 솔루션(XML, DRM, CAS 등)은 완성되었으나 여러 플랫폼 사업자간의 공동 서비스 제휴 및 결합이 멀티 플랫폼, 멀티 콘텐츠 서비스 개발의 주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즉, 플랫폼 사업자의 결합이 모두에게 Win-Win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적 보완 등이 이뤄져야만 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DTV관련 Solution을 접근하는 Nagravision의 두 가지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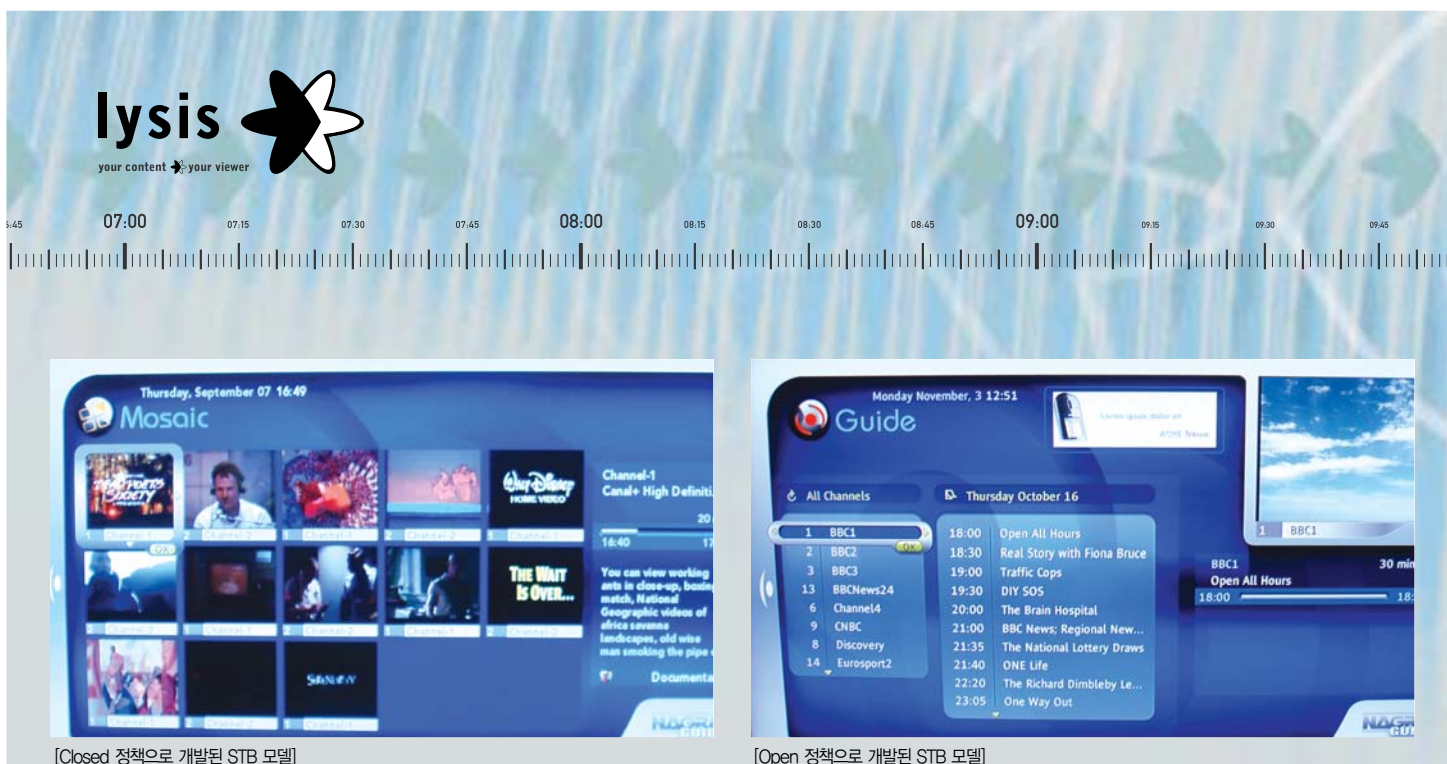
이번 출장 중 Lysis사 근처에 위치한 모회사인 Nagravision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아끼자기하게 꾸며진 자사의 시스템 Demo 등을 구경하고, 간략하게 Nagra에서 추진 중인 DTV관련 Solution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개발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졌다.

Closed 정책

- 수신기 H/W+미들웨어+EPG+CAS 등을 Nagra에서 개발
- 구축비용 저렴
- 타 솔루션과 호환성 적다
- 신규/중소 플랫폼 사업자에 적합

Open 정책

- 모든 부문별 파트는 분리 구축 제공가능 Nagra Solution별
- 구축비용이 Closed 정책보다 단가가 고가
- 타 솔루션과의 호환성 위주
-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적합



Lysis사의 모회사인 Nagravision은 자신의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앞의 두 가지 정책 모두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Nagravision의 신규 개발 중인 DTV Solution의 특징은 디지털의 단점인 Security 분야의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향후, 준비되는 STB는 기본적으로 IP네트워크를 고려한 Ap 및 BM들이 개발된다는 분위기였다. 유럽에 위치한 회사답게 DVB 표준관련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었으며, 삼성과 같이 개발된 DVB-CPCM이 장착된 TV와 DVB-H를 사용한 Mobile TV도 볼 수 있었다.

맺음말

이번 출장은 당사 시스템 운용 교육 및 최근 이루어진 시스템 변경의 보완점에 대한 협의가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 Lysis가 추진 중인 차세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과 Nagravision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던 스위스란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도 이번 출장의 성과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영토도 작고 대부분이 산악 지대인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언어도 통일되지 못한 채 3개 국어를 사용하는 나라, 여러모로 국가가 발전하기에는 불리한 환경이라 여겨지는 이 나라는 그러한 단점들을 극복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산악지대는 전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였고, 다국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단점은 영어라는 세계 공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해결하는 동시에 그들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단순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여겼던 이 나라에서 다가오는 첨단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된 출장이었다.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삶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스스로를 가다듬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